

# 제주도 신화 속 반(半)영웅적 존재의 의미

김 신 정

(서강대학교 시간강사)

### < 차례 >

- 1. 서론
  - 2. 신화 속 반영웅적 존재의 유형
  - 3. 신화 속 반영웅적 존재의 관계적 자아와 역할
  -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제주도 신화 속에는 다른 신들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다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신들이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들을 ‘반(半)영웅적 존재’로 놓고 그들의 서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과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궁따님아기는 능력의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회를 얻는다. 소별왕은 수수께끼와 꽃피우기내기에서 지지만 오래자기내기를 할 기회를 얻는다. 동해용궁따님아기는 산모과 아기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음에도 명진국따님아기와 생불왕자리를 놓고 겨루기를 할 기회를 얻는다. “문전본풀이”의 노일제테귀일의 딸과 “마누라본풀이”의 대별상, 그리고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이는 악행을 하고 벌을 받지만 결국 신으로 좌정한다.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죽이고 여산부인 행세를 하지만 여산부인의 아들들에 의해 갈갈이 찢겨진 후 축간신이 된다. 대별상은 아기들에게 마마를 내리고, 이에 화가 난 삼승할망이 대별상의 아내가 해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 결국 삼승할망에게 용서를 구한다. 정수남이는 주인 자청비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다 주인을 겁탈하려고까지 하다가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한 후 자청비에 의해 다시 살아나 세경신이

된다. 신화적 서사 안에서 반영웅적 존재의 관계적 자아가 두드러지며, 반영웅적 존재는 영웅의 성장에 관여하고 영웅을 입체적 인물로 그려내는데 일조한다. 영웅과 반영웅적 존재의 행위와 갈등은 대립항을 이루는데, 이때 대립항은 교환가능하고 소멸하거나 공존한다. 대립의 관계가 무화되므로 결국 반영웅적 존재 역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영웅, 반영웅적 존재, 기회, 성장, 관계적 자아, 교환가능, 공존

## 1. 서론

“신화는 인류의 유년기 이야기”라고 하였다.<sup>1)</sup> ‘유년기’라는 단어가 풍기는 어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하나는 아직 덜 자란, 미성숙한 사고이고 또 하나는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린이만의 다양하고 광활한 상상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화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신화를)비판하는 입장’과 ‘(신화가 우리를)구제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전자는 신화를 비현실적이고 유치하며 거짓된 것으로 치부하여 비판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신화가 가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의미야말로 타락한 근대문명과 도구적 이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2)</sup> 이 두 입장은 모두 신화 속 갈등 구조나 인물의 형상 즉 신적 형상이 인간의 사고체계와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낸 생산물임을 전제로 한다.

종교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동·서양을 비롯한 모든 신화의 유사성(相似性)을 기반으로 하여 신화 속 영웅의 보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신화적 영웅의 길은 부수적으로는 지상적일지 모르나, 근원적으로는 내적인 길”<sup>3)</sup>이며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

1) 임종대·이재황(2006), 「신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유년기와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국어독문학』47권3호, 한국국어독문학회, 211쪽.  
2) 위 논문, 215쪽.

이의 세계로 떠나고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세계로 돌아오는”<sup>4)</sup>자이다. 또한 “사회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거나 경멸을 당하기도”<sup>5)</sup>하는 자이다. 조셉 캠벨은,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이미 영웅이 존재하며, 영웅의 모험과 그가 추구하는 바가 역시 영웅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sup>6)</sup>이라며 신과 인간의 상동성(相同性)을 설명한다. 요컨대 인간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신을 서사적 세계 안으로 호출하며, 그 영웅(신)의 정체성은 인간과 유사하기에 인간은 그를 숭배하기도 하지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sup>7)</sup>

한국 설화에 나타난 영웅의 유형에 대해 정리한 조동일은, 무속신화 속 ‘괴내깃도’와 ‘바리공주’를 예로 들어, 무속신화 속 신들을 무속이라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영웅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영웅들이 신화 속에서 겪는 시련과 투쟁은 인간을 질병, 재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신들의 노력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sup>8)</sup> 나수호 역시 한국 설화에 나타난 민중영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sup>9)</sup>을 든 바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설화 속 영웅들은 트릭스터의 특징인 피와 속임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 행위의 근원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

3) 조셉 캠벨(2007),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44쪽.

4) 위의 책, 45쪽.

5) 위의 책, 52쪽.

6) 위의 책, 54쪽.

7) “신이 가진 초자연적인 힘, 초월성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발전해온 개념으로 원시인들에게 초자연적 행위자는 인간보다 크게 우월한 존재는 아니었다. 인간은 오히려 신을 겁주거나 강제로 인간의 뜻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지식의 진보로 인해 자연의 거대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깨달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2017), 이용대 역, 『4장. 인간신』,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120쪽.

8)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8쪽.

9) “영웅이란 세 가지의 필수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인물의 기본자질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과 용맹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인물의 행위에 있어서 남을 위해 위대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로는, 인물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있어서 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나수호, 『방학중의 영웅적 성격에 대한 탐구』, 『국문학연구』28권, 국문학회, 2013, 316쪽.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것이 영웅의 모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웅적 특성을 갖지 못한 또 다른 영웅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결국 신으로 좌절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위가 자신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존재에 대한 방해와 적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의 모험과 시련이 절대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으로나마 진행되어 왔다. 신연우<sup>10)</sup>는 창세신화에 나타난 속이기 양상을 통해서 ‘석가’의 트릭스터적 특성을 추출해냈다. 석가의 실패에 대해 그 겨루기의 승리가 반드시 인간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석가의 속임수가 겉으로는 악행이어도 그 이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지영<sup>11)</sup>은 “문전본풀이” 속 ‘노일제데귀일의 딸’에 주목하여 그를 본부인이자 첩, 계모의 형상을 두루 갖춘 독특한 악인으로 해석한다. 또한 그가 저지른 악행은 고전소설 속 여성 악인의 경우처럼 가족 안에서 느끼는 소외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성격이 근원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은희<sup>12)</sup>는 “세경본풀이” 속 ‘정수남이’의 존재양상에 대해 그가 트릭스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자청비가 정수남이와의 속고 속이는 경험을 통해서 초월적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동훈<sup>13)</sup> 역시 ‘정수남이’에 대해 ‘수성(獸性)’을 지닌 자이자 ‘땅’을 의미하는 존재라고 하며 자청비는 ‘신성’을 가진 문도령과 ‘수성’을 가진 정수남이를 매개하는 ‘인간’

10) 신연우(2013), 『한국 창세신화의 ‘속이기’모티프를 통한 트릭스터의 이해』, 『고전문학연구』44권, 한국고전문학회, 102~129쪽.

11) 이지영(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데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99~233쪽.

12) 이은희(2013),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56집, 중앙어문학회, 233~262쪽.

13) 신동훈(2013), 『<세경본풀이>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51집, 비교민속학회, 119~145쪽.

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논의들은 속임수나 악행의 서사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찾으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본고는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악인으로 표상되거나 영웅으로서 부족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인물들의 서사적 역할과 그 의미를 찾으려는 목표를 지녔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적대자로서의 반(反)영웅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역할과 가치를 기대해 볼만한 반(半)영웅적 존재로 보고, 이들을 포용하는 신화적 사고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 2. 신화 속 반영웅적 존재의 유형

이 논문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궁따님아기,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데귀일의 딸, “마누라본풀이”의 대별상,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이에 주목하였다. 이 인물들은 결과적으로 신으로 좌정하기에 분명 인간의 숭배 대상이자 민중의 영웅이지만 동시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다’는 영웅의 보편적인 자질과 특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2.1. 실패와 능력부족에도 기회를 얻는 자 : 소별왕, 동해용궁따님아기

“천지왕본풀이”에는 형제가 등장한다. 하늘의 천지왕은 예지몽을 꾸 후 지상으로 내려가 총명부인과 결연한다. 그 꿈은 해와 달을 각각 두 개씩 인간 세상에 보내자 낮에는 너무 뜨거워 사람들이 죽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사람들이 죽어 해와 달을 하나씩 먹는 내용이다. 해와 달을 내 보내는 주체와 먹는 주체가 누구인지 빠져있지만, 꿈을 꾸자마자 지상으로 내려가 혼인을 하는 천지왕의 행위를 보면, 문제를 만들 주체와 해결할 주체 모두 천지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이 예언한 대로 그가 남

기고 온 두 명의 아들들은 성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아버지가 남긴 박씨를 심어 줄기가 자라자 박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역시 꿈의 예언대로 그들은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을 해결하지만, 이내 인간세상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두 개의 해이자 두 개의 달인 셈이다. 천지왕이 앉던 자리인 용상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옥황에 도착한 두 형제는 이승법 저승법을 마련하고자 하고, 둘이 겨루어 이긴 자가 인세를 차지하자고 한다.

[가] 형님도 이승법을 차지하려하고 아우도 이승법을 차지하려 할 때에,  
“그러면 우리 수수께끼나 해서 이기는 자는 이승법을 차지하고 지는 자는 저승법을 차지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럼 아우야, 어떤 나무는 주야평생 이파리가 안지고,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지느냐?”

“형님, 오곡에서 나무가 짧은 것은 주야로 평생 이파리가 안 지고, 오곡에도 속이 빈 나무는 주야평생 이파리가 집니다.”

“설운 동생아, 모른 말을 하지말아라. 청대와 갈대는 마디마디가 비어도 이파리가 안 진다.”

그 말마디 저 간다.

“그러면 동생아, 어떤 일로 동산에 풀은 자라지 못하여 짧고, 구렁에 풀은 잘 자라 길어지느냐?”

“그건 이, 삼, 사월 봄에 비가 오면서 동산의 흙은 구렁으로 가니 동산의 풀이 짧고 구렁의 풀은 키가 큼니다.”

“설운 동생아, 모른 말 말아라. 어떤 일로 인간 사람의 머리는 길고 발등에 털은 짧으냐?”

그 말마디 지어가는구나.

“형님, 그럼 꽃이나 심어서 번성하는 자는 이승법을 차지하고 시드는 꽃이 되면 저승법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바구왕에 가서 꽃씨를 찾는구나. 지부왕에 가서 꽃씨를 타다가 은동이 늦동이 나무동이에 꽃씨를 심었더니, 형이 심은 꽃은 번성꽃이 되고, 아우가 심은 꽃은 시드는 꽃이 되었구나.

“이제는 형님, 잠을 오래자기경쟁이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형님은 늑자마자 잠이 든다. 아우는 길으로 자는 척하고 있다가 형이 잠들자, 형의 꽃은 자기쪽으로 당겨놓고 자기 쪽은 형 앞쪽에 놓아 두고,

“형님 형님, 일어나십시오. 점심도 드십시오.”

일어나고 보니 형의 꽃은 아우 앞에 가 있고, 아우 앞에 있던 시드는 꽃은 형 앞에 가 있구나.

형인 대별왕이 말을 하되,

“설운 아우 소별왕아, 이승법은 차지하여 들어서도 좋은데, 인간 세상에는 살인 역적이 많을 것이다. 도둑도 많을 것이다. 남자는 열 다섯15세가 되면 자기 아내는 놓아두고 남의 아내를 엿보는 자 많을 것이다. 여자도 열다섯 15세가 넘어가면 자기 남편 놓아두고 남의 남편 엿보는자 많을 것이다.”

그런 법을 마련하고,

“나는 저승법을 마련하겠다.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다.”<sup>14)</sup> ([밑줄: 인용자], “천지왕본풀이”)

인용한 [가]의 장면은 대별왕·소별왕 형제가 넝쿨을 타고 옥황으로 올라가서 주인 없는 용상을 보게 되고 이윽고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인 탓에 고통 받는 인간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내용이다. 형제는 “천근 활 백근 살”을 받아 해와 달을 하나씩 썬서 바다에 버린다. ‘주인 없는 용상’은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다음 세대임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가]의 제시된 장면은 ‘누가 이승을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내기는 동생이 먼저 제안한다. 동생은 형에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제안하는데, 정작 형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다. 밑줄 친 부분은 동생인 소별왕이 형에게 지는 대목이다.

수수께끼는 낸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내기의 형식이지만, 수수께끼의 승부는 질문자이든 답변자이든 답을 말하는 순간, 즉 재치와 상상력의 급수를 서로 확인하는 순간에 결정된다.<sup>15)</sup> 그런데 동생

인 소별왕은 호기롭게 수수께끼를 내 보라고 제안하고는 두 번 연속해서 형이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지 못한다. 세상 만물에 대한 그의 지식과 이해가 대별왕의 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연속된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동생은 계속 내기를 제안하는데, 이번에는 ‘꽃피우기 내기’이다. 꽃피우기 내기는 “천지왕본풀이”뿐 아니라 “창세가”,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등장하는 화소로 번성력 혹은 생산력의 거름을 의미한다. 이 내기에서 역시 소별왕은 번성꽃을 만든 대별왕과 달리 시드는 꽃을 만든다. 소별왕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오래 자기 경쟁’을 하자고 한다. 대별왕이 오래자기 경쟁을 위해 깊은 잠에 들자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소별왕은 번성꽃을 자기 무릎 앞에, 시드는 꽃을 대별왕 앞에 두고 형을 깨운다. 소별왕은 수수께끼에서 지고, 꽃피우기에도 지고, 오래자기에서는 아예 자지도 않았으므로 모든 게임에서 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번성꽃은 소별왕이 차지함으로써 대별왕은 허탈하게 ‘인간세상은 내가 차지하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의 ‘자질’이다. 자질은 성품과 능력을 포함하는데 소별왕은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 여러 번의 겨루기에서 소별왕은 거듭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겨루는 수수께끼를 두 번이나 맞추지 못한다. 꽃피우기내기에서도 번성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속여서 그 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인데, 이러한 행동에서 이기적이고 비겁한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속임수를 쓴 소별왕에게 대별왕은, ‘인간세상은 내가 갖되 인간세상은 어지러울 것’이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대별왕이 소별왕의 이승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 영향력을 소별왕은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별왕은 영웅의 특성과는 먼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게는 이길 때까지 겨루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

14) 현용준·현승환(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23쪽.

15) “수수께끼의 해답은 숙고나 논리적 추론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다...(중략)...질문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규칙에 맞는 제2의 해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질문자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는 그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요한 호이징아(1999), 김윤수 역, 『6장. 놀이와 지식』, 『호모무덴스』, 까치, 170~171쪽.

었다. 이 같은, 부족한 인물에 대한 서사적 세계의 지연된 판단과 기회의 제공은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1] “나도 처녀, 저기 앉아 우는 것도 처녀, 어찌 처녀아기씨가 앉아서 우는고? 어서 가보자.”

“어떤 아기씨가 앉아서 슬프게 읊니까?”

물었더니,

“나는 동해용궁 따님아기로 인간세상에 생불왕으로 귀양을 와 슬프게 읊니다.”

맹진국 따님아기 말을 하되,

“나는 옥황상제의 분부받은 인간세상의 생불왕이 됩니다.”

그 말 끝에, 동해용궁 따님아기 화를 벌칙 내며 맹진국 따님아기의 머리를 좌우로 핑핑 손에 감아서 구타하니, 맹진국이 말을 하되,

“우리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옥황상제 분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

노각성자부줄로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너희들 얼굴을 봐서는 어느 누가 낫다고 구별할 수 없고, 생불 환생을 주는데도 어느 누가 낫다고 구별할 수 없다. 천계왕을 부르라. 벽계왕을 부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주면 서천서역국 자갈한 모래밭에 꽃씨 두 방울을 심어 꽃 번성하는대로 생불왕을 구별하겠다.”

모래밭에 꽃씨를 뿌렸더니 꽃이 번성하는데, 동해용궁 따님아기 꽃은 보니 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송이도 하나로 시드는 꽃이 되고, 맹진국 따님아기 꽃은 보니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 5천 6백가지로 번성한다. 옥황상제에게 꽃 사랑을 하러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동해용궁 따님아기 꽃은 보니 시드는 꽃이 되었으니 저승할망으로 들어가고, 맹진국 따님아기 꽃은 보니 번성꽃이 되었으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서라.”<sup>16)</sup> ([밑줄: 인용자], “삼승할망본풀이”中)

인용한 [나-1]의 장면은 맹진국따님아기와 동해용궁따님아기가 처음 만나는 대목이다. 이 신화는 삼승할망이 되는 맹진국따님아기와 저승할

16)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31~33쪽.

망이 되는 동해용궁따님아기의 이야기이다. 동해용궁따님아기는 어린 시절의 잘못으로 무쇠 석갑에 갇혀서 바다에 버려진다. 무쇠 석갑에 갇히기 직전 그녀의 어머니는 동해용궁따님아기에게 생불왕이 되라고 하며 환생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해산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임박사의 도움으로 무쇠석갑에서 나와 원이 넘은 임박사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주지만 해산시키는 법을 몰라 임박사 부인의 겨드랑이를 뜯어버린다. 다 죽게 생긴 산모와 아기를 놓고 임박사가 요령과 바라소리로 옥황상제에게 억울함을 알리자 옥황상제는 ‘생불왕’을 보내주겠다며 맹진국따님아기를 생불왕으로 임명하여 인간세상으로 보낸다.

[나-1]의 제시된 장면에서 처음 만난 동해용궁따님아기와 맹진국따님아기는 생불왕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옥황상제에게로 가게 된다. 분명 동해용궁따님아기가 먼저 생불왕이 되었으므로 맹진국 따님아기의 등장은 동해용궁따님아기에게는 난데없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사건이 된다. 그러나 맹진국따님아기는 동해용궁따님아기와 달리 이미 태생적으로 생불왕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옥황상제에게 환생시키는 법과 해산시키는 법을 배우고 온 ‘준비된’ 자로 그려진다. 동해용궁따님아기와 맹진국 따님아기는 어린시절의 묘사에서부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2] ①동해용궁 할머니가 태어나기는 구월 초아흐렛날 아버지 동해용궁 어머니 서해용궁으로 태어나 열다섯 십오세 되니, 한 두 살에 아버지 삼각수 뽕은 죄목, 아버지 담뱃대 꺾은 죄목, 어머니 젓가슴 잡아뜯은 죄목 때문에 죽이기로 했습니다.<sup>17)</sup>

②아버님은 석가여래 어머니는 석가모니로서 인간세상에 맹진국 따님아기가 태어났는데, 탄생일을 보니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정월 초사흘날 태어나,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깊은 물에 다리 놓아 건너다니게 공덕을 쌓고, 한쪽 손엔 번성꽃 한쪽 손엔 환생꽃을 들었으니, 이 아기씨를 생불왕으로 들어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sup>18)</sup> (“삼승할망본풀이”中)

17) 위의 책, 25쪽.

18) 위의 책, 29쪽.

인용한 [나-2]는 동해용궁따님아기의 어린시절(①)과 명진국 따님아기(②)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서술이다. 아버님 삼각수를 뽑고 담뱃대를 꺾고 어머니님 젓가슴을 뜯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으나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무쇠석갑에 가둬 물에 띄워버리는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큰 죄임이 확실하다. 반면 명진국따님아기는 효심있고 공덕을 쌓은 데다가 양 손에 각각 번성꽃과 환생꽃을 들고 있다고 하니 생불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해용궁따님아기는 명진국따님아기에 비해 삼승할망이 되기에 부족한 자질을 가졌음은 틀림없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둘의 능력 차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옥황상제가 명진국따님아기를 친히 생불왕으로 임명했음에도 [나-1]의 밑줄 친 문장에서처럼, 옥황상제는 서로 생불왕을 하겠다고 다투다 자신을 찾아온 두 인물에게 곧바로 ‘명진국따님아기가 생불왕이다’라고 하지 않고, 꽃피우기 내기를 시킨다는 점이다.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이처럼 능력이 같지 않은 두 존재가 있고, 그 능력이 같지 않음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쪽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별왕은 승리하고 인간 세계를 차지하는 반면 동해용궁따님아기는 패배하고 저승아기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다르다. 그러나 동해용궁따님아기가 해산 능력의 부족함에도 겨루기의 기회를 제공받고, 번성력의 부족함에도 결과적으로 신으로서 좌정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세계가 동해용궁따님아기를 포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해용궁따님아기의 저승할망되기는 소별왕의 인간세상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22. 악행으로 벌을 받는 자 : 노일제데귀일의 딸, 대별상, 정수남이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두 존재는 겨루기를 통해

승패가 가려졌다면, “문전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에서는 영웅에 의해 벌을 받는 악인이 등장한다.

[다-1] 그때, 늑대생인이 화를 발딱 내면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의 왼 다섯자 머리를 좌우로 뱅뱅 감아서 한편으로 잡아 옆질러 두고, 한쪽 손에 간 세 개씩 여섯 개를 쥐어서 지붕 위 상마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동네 어른들아, 저 동네 어른들아, 의붓어머니 의붓자식 있는 사람들아, 나를 보고 반성하십시오.”

“설운 형님들아, 동서쪽으로 달려드십시오.”

동서로 와라치라 달려드니, 남선비는 도망갈 길을 잃어 먼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고,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벽을 끊어 뜯어서 벽에 구멍을 뚫어 변소에 들어가 왼 다섯자 머리를 변소 발판에서 목을 메어 주고, 일곱형제는 달려들어 죽은 위에 다시 복수하고자 두 다리를 뜯어 드릴광을 만들고, 머리는 끊어서 돼지 먹이통을 만들고, 머리털은 끊어 던져 버리니 저 바다의 폐가 되고, 입은 끊어 던져 버리니 솔치가 되고, 손톱 발톱은 끊어 던져 버리니 쇠꿈뻛 돌꿈뻛이 되고, 배꼽은 끊어 던져 버리니 굼뻛이가 되고, 하문은 끊어 던져 버리니 대전복 소전복이 되고, 육신은 독독 뿡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시켜 두고, 육신은 독독 뿡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시켜 보내두고,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 올라가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타다가 오동나무 주천강 연못에 가서,

“명천 같은 하늘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신체나 찾으리다.”<sup>19)</sup>

(중략)

그때에 낸 법으로 삼명절 기일 제사 때 문전제를 지내고 나면 옷제반은 지붕위에 올리고, 알제반은 어머니인 조왕할머니에게 올립니다.

노일제데귀일이 딸은 변소에 가서 죽었으니 측도부인 변소신으로 마련하고, 그때 낸 법으로 변소와 부엌이 마주 서면 좋지 못하는 법이어서 부엌의 물건은 변소에 못 가져가고 변소의 것은 부엌에 못 가져가는 법입니다. 헤어 나가도 문전 헤어 들어와도 문전, 일문전 본풀이가 되웁니다.<sup>20)</sup> (“문전본풀이”中)

인용한 [다-1]의 장면은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여산

19) 위의 책, 279쪽.

20) 위의 책, 277~281쪽.

부인의 아들 녹디생인에 의해 갈갈이 찢겨지는 대목이다.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부부였고, 녹디생인을 포함한 일곱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하겠다고 다른 섬으로 가게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떠나고, 그곳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노일제테귀일의 딸)과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산부인은 다시 만난 남선비에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를 본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에게 목욕을 가자고 꼬드겨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산부인의 옷을 훔쳐 입는다. 남선비에게 자신을 여산부인으로 속여서 함께 남선비가 살던 곳으로 온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 채자 아들들마저 죽일 생각을 한다. 위 제시된 장면은 여산부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노일제테귀일의 딸에게 달려들어 복수하는 대목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찾아 나선 여산부인과 달리,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이미 완성된 남의 가족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이다.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자신이 병이 들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들들을 죽여야 한다며 남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2] “설운 낭군님아, 그러거든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주면, 내가 살아나서 한 배에 셋씩 세 번만 낳으면 형제가 더 붙어서 아홉 형제가 될 거 아닙니까?”<sup>21)</sup>

인용한 [다-2]는 노일제테귀일의 딸이 남선비에게 자식을 죽여 그 간을 먹어야 제 병이 낫는다고 하며 자식이 없어도 자신이 낳으면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이기적이고 잔인무도한 자로 남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악인이다.

앞서 제시된 [다-1]의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정체를 들킨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자살하지만, 아들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녀의 신체를 갈갈이

21) 위의 책, 273쪽.

찢어버린다. 그녀의 몸은 굼벵이, 전복, 모기, 각다귀 등으로 환생하고, 그녀는 측간신으로 좌정한다. 마지막 대목에서 “변소와 부엌이 마주 서면 좋지 않은 법”이라고 하지만 변소는 주거공간에 엄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다.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비록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용서받고 집안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신화적 세계에서는 악행을 한 존재에게 벌을 줌으로써 악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대신 마련해주고 신으로 좌정시키기도 한다. 이 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정치를 받은 후 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은 “마누라본풀이”의 마마신 대별상과 “세경본풀이”의 세경신 정수남이로도 형상화되고 있다.

[라] 할머니가 공손히 두 무릎을 꿇고 열 손을 마주 붙여,  
“대별상님아, 제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자손에게 고운 얼굴이 되게 마마를 시켜 주십시오.” 대별상이 그때에야 봉황의 눈을 부릅뜨고,  
“이게 무슨 일이나! 여성이라 하는 것은 꿈에만 나타나고 사물인데, 남자 대장부 행차길에 사망한 여성이라 하는 것이 웬일이나? 꽤 씹하다.”

화를 내고, 대별상은 생불 할머니가 탄생시킨 자손의 고운 얼굴에 마마를 준다. 자손의 고운 얼굴이 대별상이 주는 마마로 인해 바가지 같은 못생긴 얼굴이 되어가니, 맹진국 할머니도, “대별상이 하는 것이 꽤 씹하구나. 나한테도 한번 굴복하여 사정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생불꽃을 갖다가 대별상 부인 서신국 부인에게 유태를 주니, 한 두달이 지나고 열 달이 지나고 열두 달이 넘어가는데 해산을 하지 못한다. 서신국 부인이 죽을 사경에 이르렀으니, 마지막으로 생불 할머니이라도 청해다 주십시오.”

대별상이 생각하니,

“남자 대장부가 어찌 여성을 청하러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마누라가 죽게 되었으니 한번 가 보자.”<sup>22)</sup>(“마누라본풀이”中)

인용한 [라]의 장면은 삼승할망과 마누라신(마마신)인 대별상이 마주치는 대목이다. 삼승할망은 절박한 심정으로 공손하게 자손들에게 마마

22) 위의 책, 37~39쪽.

를 주지 말라고 하지만, 대별상은 ‘죽은 여성이 남자의 길을 막는다’고 대노하며 삼승할망이 탄생시킨 아기의 얼굴을 곰보로 만든다. 화가 난 삼승할망이 대별상 부인에게 유태를 주고 해산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제서야 대별상은 삼승할망에게 살게 해달라고 빌게 된다.

에서 오른쪽 귀로 나오게 잡아 찢었더니, 정수남인 얼음산에 구름 녹듯 죽어간다.<sup>23)</sup> (“세경본풀이”中)

인용한 [마]의 장면은 문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청비를 능욕하려던 노비 정수남이가 끝내 주인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목이다.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능욕하려는 생각에 거짓말로 굴미굴산에 문도령이 와 있다고 하며 자청비를 골탕 먹인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말에 몇 번 속다가 이내 그의 의도를 깨닫고 그가 자는 동안 청미래덩쿨로 꼬챙이를 만들어 귀를 찢러 죽인다.

자청비는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과 유독 갈등이 많은 여신이다. 그 갈등은 자청비가 처하게 되는 상황적 곤궁함에서 비롯된다. 그 상황적 곤궁함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한다. 만나자마자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러 떠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지만, ‘남장’으로 인해 문도령은 자청비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이와의 갈등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수남이를 살해하지만, ‘딸은 남자 종만큼도 필요하지 않다’는 부모의 불호령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난다. 하는 수없이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가게 되고, 거기서 황세곤간의 셋째딸아기와 남자로서 혼약을 한다. 이처럼 자청비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있으며 정수남이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정수남이는 자청비로 인해 살아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도 자청비덕분에 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는 자청비를 따라 세경신 중 하경신으로 좌정한다. 반영웅적 존재로서 그는 자청비에게 한 짓으로 인해 두 번 죽는 벌을 받지만, 결국 자청비의 덕으로 그녀와 함께 농경신이 된다.

이처럼 신화 속에서는 악행을 하고 벌을 받는 신들이 존재한다. 악행을 하여 상대방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인들이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벌을 받지만, 이내 용서받는다.

23) 위의 책, 229~233쪽.

[마] “정수남아, 어떤 일로 이렇게 하느냐? 너의 소원이니 말해보아라.”  
 “상진남아, 상진남아, 이렇게 하십시오. 은길 같은 손이나 만져 봅시다.”  
 “정수남아, 내 손 만지는 것보다 집에 가서 토시 한 짝을 꺼 보라. 더 좋다.”  
 “이렇게 하십시오. 입이나 맞추어 봅시다.”

“내 허리 안는 것보다 내 늙는 방안의 꼴단지를 혀로 핥아 봐라, 더 달다.”  
 정수남인 동쪽으로도 팔짝, 서쪽으로도 팔짝, 팔죽같은 화를 내어가니, 자청비가 말을 하되,

“정수남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서산에 해가 지고 있으니 오늘 저녁밤이나 지내게 돌로 담이나 쌓아 올려 움막이나 짓자.”

행동이 재빠른 정수남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동으로 뺨은 나뭇가지 서로 짓혀놓고, 서로 뺨은 가지 동으로 짓혀 움막을 하나 지어노니, 담구멍이 배롱배롱한다.

“정수남아, 저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을 듯 하니 안으로 내가 불을 피우거든 너는 바깥에서 불이 비치는 구멍은 풀을 베어다 막아라.”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안으로 불이 비치는 구멍마다 정수남이 풀을 베어다 열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안에서 다섯구멍을 빼어 꿈무늬에 깔아 앉고, 다섯구멍 막으면 두구멍을 빼고, 이럭저럭 하는 것이 먼동이 터 천지가 밝아간다.

정수남인 더군다나 동서로 펄쩍펄쩍 뛰어가니, 자청비가,

“정수남아,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말안장이나 벗겨다 깔아서 무릎이나 베고 누어라. 머리에 이나 잡아주마.”

말 안장을 벗겨다 깔고 자청비의 은길 같은 무릎을 베고 눕는다. 자청비가 정수남의 땀방석 같은 머리를 헤쳐보니 흰 모래에 앉았던 개의 꿈무늬같다. 굵은 이는 장수로 살려두고, 자갈한 이는 군졸로 살려두고, 중간의 이를 죽이는 듯 마는 듯 해 가니 밤잠을 못잔 정수남인 소록소록 잠이 들어간다.

“이 놈 살렸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테니 이 놈부터 먼저 죽이자.”

옆에 보니 청미래덩굴이 있으니, 청미래 꼬챙이를 뽕죽하게 만들어 왼쪽 귀



### 3. 신화 속 반영웅적 존재의 관계적 자아와 역할

2장에서 살펴본 반영웅적 존재는 능력의 부족과 그로 인한 실패를 드러낸다. 그는 상대방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악행을 하여 벌을 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한 가운데 반영웅적 존재의 행위는 공통적으로 그 자신의 ‘관계적 자아’를 드러낸다. ‘겨루기’와 ‘승패’, ‘악행’과 ‘징치’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정체성은 스스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이기<sup>24)</sup> 하다는 점에서 관계 속 반영웅적 존재의 행위는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3.1. ‘성장’을 위한 겨루기

설화 속에서 두 인물의 대결 구도는 보편적이며 승패는 해당서사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하기에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이 술수를 써서라도 이긴 것에 대해 “이 세상의 공명정대하지 못한 질서에 대한 해명”<sup>25)</sup>이라고 보기도 하고 소별왕과 비슷한 인물로 형상화되는 “창세가” 속 ‘석가’의 승리에 대해 “자연에서 문화로의 발달”<sup>26)</sup>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이 겨루기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겨도 그의 승리가 용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궁따님아기가 생불왕 자리를 두고 명진국따님아기와 다툰 때 옥황상제가 둘의 겨루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동해용궁따님아기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능력이 부족한 존재에게 재차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별왕과 소별왕, 동해용궁따님아기와 명진국따님아기는 경쟁하는 구도에 놓여 있으나, 그들의 능력이 지닌 가치와 크기에 대한 신화적 세계의 분별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겨루기는 능력의 ‘분별’이 아니라 경쟁에 참여한 자들의 ‘성장’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능력 차이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대별왕이 마지막에 소별왕의 이승차지에 대한 일종의 저주를 내릴 때 그것을 소별왕이 막을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별왕이 수수께끼의 문제를 ‘내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위계상으로나 능력상으로 대별왕이 소별왕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적 세계는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각자가 지닌 서로 다른 능력을 그저 보여주되, 인간세상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주어진, 상대와 겨룰 수 있는 기회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즉 ‘성장의 경험’으로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별왕은 겨루기를 통해 상대방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소별왕은 상대방의 공명정대함을 배울 수 있다.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대별왕과 소별왕이 경쟁하고 있지만, 인간세상과 저승 중 어떤 세상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며 우위에 있는 지 설명하기 어렵다. 신화 속 이승과 저승의 위계관계도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겨루기에서 이긴 자만이 인간세상을 차지하지만, “차사본풀이”속 과양생이 아들들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사건을 이승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염라대왕을 데리러 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저승의 질서는 때로 이승의 질서를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삼승할망본풀이”의 두 인물에게도 해당된다. 명진국 따님아기는 동해용궁따님아기보다 늦게 등장한다. 해산법을 몰랐던 동해용궁따님아기와는 다르게 명진국 따님아기는 생불하는 법과 해산하는 법을 둘 다

24) 한나 아렌트는 사회구조가 지켜야 할 인간의 다원성은 개인의 말과 행위로 인한 동등성과 차이성을 근간으로 함을 강조하며, 인간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한 바 있다. 한나 아렌트(1996), 이준오·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39~240쪽 참고.

25) 이강엽(2011), 「설화의 ‘쌍패(double)’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33권, 한국구비문학학회, 55쪽.

26) 김현선(2005),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28집, 비교민속학회, 258쪽.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용궁따님아기와 경쟁을 해야 했다. 경쟁에서 이긴 명진국 따님아기는 동해용궁따님아기가 화를 내며 “인간에 생물을 주고 환생을 주어 석달 열흘 백일이 되면 경풍, 경세같은 열두풍운의 병을 주어 얻어 먹겠다”고 저주하고, 삼승할망은 “그리 말고 우리 좋은 마음 먹기가 어떠냐?”며 저승할망을 위해 멜빵9자로 인정을 걸어주고, 멜빵 수호신의 뿔과 업저지 수호신 뿔도 인정 걸어주겠다고 하며 그녀를 달랜다. 그리고 서로 작별 잔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화해의 모습에서 삼승할망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 둘이 만나서 생불왕을 두고 다투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경쟁은 반드시 결과와 승패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통해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세계가 반영웅적 존재에게 너그러웠던 지점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반영웅적 존재는 영웅의 상대자로서 영웅의 성장에 관여하고 자신도 성장하는 관계적 자아로서 역할하고 있다.

### 3.2. ‘입체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계기로서의 악

그렇다면 악행을 저질러 벌을 받지만 신으로 좌정하는 반영웅적 존재는 영웅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짝패라는 개념을 대입해볼 수 있다. 고전소설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짝패인물들을 연구한 이강엽에 따르면, 짝패(double)는 르네 지라르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서 ‘짝이 되는 패’, 즉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인 인물들을 말한다.<sup>27)</sup> 그렇다면 “문전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에 각각 등장하는 여산부인과 노일제데귀일의 딸, 삼승할망과 마마신, 자청비와 정수남이는 짝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문전본풀이”의 이

27) 이강엽, 앞의 논문, 47쪽.

야기 끝자락에서 여산부인과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각각 부엌신과 변소신으로 좌정하여 마주 보게 되었다<sup>28)</sup>는 서술을 통해서 그들이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부엌과 변소는 한 가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강엽에 따르면, “짝패는 둘의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패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그 둘의 차이점이 있어서 짝”<sup>29)</sup>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화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이 본래부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들을 남겨 놓고 남편을 찾아 떠난다. 남편이 떠나자 아들을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수명장자 집에 노비로 사는 원강암이(“이공본풀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산부인이 남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자라면,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완성된 가족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애쓰는 자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저지른 잘못된 이미 완성된 남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을 죽이려고 한 일이다. 가족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은 가족을 떠나는 여산부인은 노일제데귀일의 딸이라는 방해자를 만나 타지에서 목숨을 잃는다. 여산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곳에서 불안하지만 자식을 지키는 일이다. 여산부인이 노일제데귀일의 딸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결과적으로 아들들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남편을 만나서 놓아주지 않은 것이나 여산부인을 죽여서라도 그의 자리에 거뒀던 모습으로나마 들어가고 싶었던 모습은 여산부인이

28)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진 후 그녀의 사체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녀는 변소신이 된다. 이러한 내용에 주목하여 이 신화를 사체환생신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노일제데귀일의 딸을 불완전한 지모신이자 생산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측간’이라는 장소가 배설물을 생산하는 공간이자 울타리 밖과 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신화적 해석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김정호·문범두(2014), 『한·일 사체환생신화 연구-‘노일제데귀일의 딸’과 ‘오케츠히메 노카미’를 중심으로-』, 『배달말』54호, 배달말학회, 109~129쪽.

29) 이강엽, 앞의 논문, 49쪽.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일의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마누라본풀이”에서 마마신을 압도하는 삼승할망의 위력은 우리에게 마마라는 병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삼승할망과 마마신의 만남은 삼승할망의 또 다른 능력, 남을 해할 수도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동해용왕따님아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동해용왕따님아기(저승할망)가 심술을 부리자 자애롭게 달래며 저승할망을 위로하여 비극을 방지했던 너그러운 삼승할망은 마마신이 자신의 간곡한 부탁도 저버리고 막무가내로 아기들의 얼굴에 마마를 내리자 마마신의 부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삼승할망은 아기를 지키는 신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산모와 아기를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음이 마마신과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정수남이는 주종관계이지만, 각각 중경신과 하경신으로 함께 농경신이 된다. 농경신임을 염두에 두고 정수남이의 행동들을 돌아해보면 그가 자청비를 상대로 생산력 혹은 생식력의 과도함<sup>30)</sup>을 드러낸 장면들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함은 자청비의 과소함과 대비를 이룬다. 자청비가 행한 ‘찌름’의 살해방식은 자청비의 한 성향을 드러내는 데 이후 문도령을 바늘로 ‘찌름’의 행위로 이어진다.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일에 능숙한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의도를 파악한 후 화를 내기보다는 내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잠이 든 그의 귀를 청미래 덩쿨로 찢러 죽여 버린다.

자청비는 결단력 있고 주체적이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편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가기 위해 남장을 했고, 어려움 끝에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표현으로

그의 손가락을 바늘로 찢렸으나 그런 선택과 행위들은 자청비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문도령과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자청비의 과소한 표현은 정수남이의 과도한 표현 행위와 대비를 이룬다.

정리하자면, 반영웅적 존재는 자신의 욕망과 행위를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영웅에 의해 벌을 받지만, 동시에 영웅의 다른 점을 들추어내어 신화적 세계가 입체적 성격의 신을 그려내는 데 일조 한다.

### 3.3. 대립항의 교환, 공존

반영웅적 존재는 부족한 능력을 가졌고, 그의 행위는 방해와 적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웅은 그와 비교하여 더 능력 있고 이타적이며 공명정대한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둘의 대립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영웅이 선의 위치에 있다면, 반영웅적 존재는 악인이다. 영웅이 질서가 있는 저승을 차지하면 반영웅적 존재는 혼란이 가득한 이승을 차지한다. 영웅이 과소함이라면, 반영웅적 존재는 과도함이다. 이렇게 영웅과 반영웅적 존재는 대립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신화적 세계 속에서 이러한 대립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한 인물 속에 한 쌍의 대립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삼승할망은 저승할망과의 관계(“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너그러움을, 대별상과의 관계(“마누라본풀이”)에서는 엄격함을 보인다. 이런 상황은 한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데,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명진국따님아기는 동해용궁따님아기를 처음 만나는 대목에서는 동해용궁따님아기의 도발에 함께 싸우다 옥황상제에게 가지만, 겨루기를 한 이후에는 저승할망의 도발에 대해 너그러움을 발휘한다. 이처럼 영웅 안에 두 가지 대립되는 성격이 이미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격 뿐 아니라 행위에서도 그러한데,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라는 대립항이 있다면,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떠나간 남편으로 인해 남겨진 자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자가 된다.

30) 중앙아메리카의 파필족(Pipile족)은 땅에 씨를 뿌리기전 40일 동안 아내와 별거하다가 씨뿌리기 전날 혹은 첫 번째 씨앗을 심는 날 성교를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종을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식물이 번식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용대 역), 『7장. 신성한 결혼』, 앞의 책, 161쪽 참고.

그런 의미에서 대립관계는 일시적이다. 예컨대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겨루기를 통해 승리와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각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저승과 이승의 위계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과 모두가 신으로 좌절한다는 점에서 승리와 패배의 구분이 사라진다. 반영웅적 존재가 악행한 결과 용서를 받고 신이 되면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또한 신화 속 대립항들은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정수남이는 각각 과소함과 과도함의 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모두 농경신으로 좌절함으로써 과소함과 과도함의 두 항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에 놓인다.

정리하자면, 영웅과 반영웅적 존재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영웅 안에 두 가지 모순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화적 사고 안에서 질서와 혼란, 선과 악, 싸움과 화해, 승리와 패배, 과소와 과도 같은 대립항은 한 인물에 모두 속하거나 궁극적으로 소멸되거나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결국 반영웅적 존재 역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4. 결론

신화 속 영웅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고 공동체를 지키거나 재건하는 인물, 모든 인간 안의 본성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미 갖고 있는 초월적 존재로서 정의된다. 이때 분명 신으로 좌절하나 그 과정에서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목표, 공동체의 지속이나 재건에 무관한 자들 역시 신화적 세계 안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적 자아’를 통해 신화적 세계 안에서 정체성을 드러낸다.

반(半)영웅적 존재를 신화적 세계는 너그럽게 포용한다. 반영웅적 존

재들이 연거푸 실패를 거듭하는 불완전함을 보여도, 태생적으로 신성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겨루기를 할 기회를 준다. 악행을 저질러도 영웅에 의해 징치됨으로써 용서받는다. 요컨대 반영웅적 존재는 영웅의 성장에 관여하고 영웅을 입체적 인물로 그려내는 데 일조한다. 영웅과 반영웅적 존재는 신화적 세계 안에서 다양한 대립항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신화적 세계 속에서 이 대립항은 교환가능하거나 소멸, 공존한다는 점에서 영웅과 반영웅적 존재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영웅 안의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볼 여지가 있다. 반영웅은 그러한 이유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현용준·현승환(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논문 및 단행본

김정호·문범두(2014), 「한·일 사체환생신화 연구-‘노일제데귀일의 딸’과 ‘오케츠히 메노카미’를 중심으로-」, 『배달말』54호, 배달말학회, 109~129쪽.

김현선(2005),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28집, 비교민속학회, 239~269쪽.

나수호(2013), 「방학중의 영웅적 성격에 대한 탐구」, 『국문학연구』28권, 국문학회, 313~341쪽.

신동훈(2013), 「〈세경본풀이〉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51집, 비교민속학회, 119~145쪽.

신연우(2013), 「한국 창세신화의 ‘속이기’모티프를 통한 트릭스터의 이해」, 『고전문학연구』44권, 한국고전문학회, 102~129쪽.

이강엽(2011), 「설화의 ‘짝패(double)’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33권, 한국구비문학회, 45~76쪽.

이은희(2013),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연구」, 『어문론집』56집, 중앙어문학회, 233~262쪽.

이지영(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테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99~233쪽.

임종대·이재황(2006), 「신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유년기와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고찰」, 『독어독문학』47권3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10~246쪽.

나카자와 신이치(2011), 김옥희 역, 『대칭성인류학』, 동아시아.

요한 호이징아(1999), 김윤수 역, 『호모루덴스』, 까치.

조동일(1992),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조셉 캠벨(2007),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2017),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한나 아렌트(1996), 이준오·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 김신정  
✉ 소 속: 서강대학교  
✉ 전자우편: kimsj602@naver.com

◎ 논문접수: 2018년 11월 22일  
◎ 논문심사: 2018년 12월 11일 ~ 12월 16일  
◎ 게재결정: 2018년 12월 19일

<Abstract>

## Half-Hero in Jeju Island Mythology

Kim, Sin-jeong

(So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focuses on heroic features of half-heroes in Jeju Island's mythology. The half-heroes become a god in the end even though they are not so much an omnipotent god in comparison with typically conceived almighty heroes. Furthermore, as opposed to traditionally acclaimed heroic roles, these half-heroes don't want to save people and community. Some of them threaten heroes' happiness and life.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ores five Jeju myths and focuses on subversive aspects of half-heroes: Sobyelwang in "Cheonjiwang-bonpuri," Donghaeyonggungagi in "Samseunghalmang-bonpuri," Noiljedeguil's daughter in "Munjeon-bonpuri," Daebyeolsang in "Manura-bonpuri," and Jeongsunami in "Segyeong-bonpuri."

Unqualified to be a god due to their lack of ability, Sobyelwang and Donghaeyonggungagi gain chances to compete with heroes. All of them desire to be a god and a goddess to control the human world rather than the underworld and thus participate in competitions. Sobyelwang asks his brother Daebyeolwang to give him riddles first, but Sobyelwang cannot defeat his brother at any of the riddle competitions. Donghaeyonggungagi is already a goddes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before Myongjingukagi appears in the story. Donghaeyonggungagi succeeds to have Imbaksa's wife's pregnant and yet fails to make her give birth. Despite such lack of qualities, Sobyelwang and Donghaeyonggungagi gain opportunities to compete for being a god and a goddess of the human world.

Noiljedeguil's daughter, Daebyeolsang and Jeongsunami receive punishment for their wrongdoings and then each becomes a goddess and gods eventually. To be specific, Noiljedeguil's daughter kills Yeosanbuin and acts like Yeosanbuin, but her body is ripped off by Yeosanbuin's sons. Daebyeolsang spreads epidemic smallpox to babies. His wife becomes unable to give birth to a baby under a curse of angry Samseunghalmang. Jeongsunami, disobedient to his owner Jacheongbi, tries to rape her and is eventually killed by Jacheongbi. He is nevertheless revived by her and becomes a god.

In these myths, the ways in which each character establishes their own relational self are notable. The half-heroes play a catalytic role for the heroes to develop various potential power and exert inherent features by confronting the half-heroes with a series of attacks and defense in the mythical world. In the process of the games they recognize strong points of their competitors, learn from each other, and then they all become a god. The half-heroes' struggles inevitably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heroes and prevent them from ending up with a two-dimensional flat character. In addit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half-heroes and the heroes and ensuing consequences generate many binary oppositions in the myths. These binaries are not static and perpetual but are extinct, exchangeable, and coexist each other. Indeed, the half-heroes enact as a hero in mythology.

Keywords: hero, character of half-hero, opportunity, growth, relational self, exchangeable, extinction, coexistence